

리밸런싱(Rebalancing)

인생 2막,
무계중심을 다시 잡다

은퇴자들 대부분 연금과 예금, 부동산 등 노후 자산을 어떻게 다시 배분할지부터 고민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먼저 리밸런싱 해야 할 것은 자산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라고 말한다.

연전(年前)에 퇴직한 한 사우는 지난 1월 중순, 대학 동기가 사는 하와이로 세 부부가 함께 등반 여행을 떠났다. 직장엔 다닐 때처럼 정해진 일정과 일상에 맞춰 계획적으로 다녀오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뜻밖에 일행 중 한 사람이 산행 중 골절상을 당했고, 이로 인해 구조대가 출동하는 등 밤새 불안과 초조함에 떨어야 했다.

게다가 등산 장비까지 도난당하는 일을 당하자, 비로소 그는 “작은 변수 하나가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은퇴 후에는 여행 준비는 물론 보험 가입과 안전 대비, 자고 일어나는 시간과 식습관 등 일상의 삶 전체를 리밸런싱해야 함을 깨달았

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최근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져 응급 뇌수술을 받은 사우회 H부회장은 지난 7월 사우회 간담회에서 가족의 일상적인 관심이 생명을 구했다고 말했다. “아침에 아내가 내 손발의 움직임을 이상한 것을 알아차리고 119에 신고한 덕분에 수술을 받아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면서 “부부는 불편하더라도 같은 방을 사용하도록 하라”고 조언했다. 부부관계도 은퇴 후 새롭게 점검해야 할 리밸런싱의 하나다.

은퇴 후에는 가족과의 연락 방식과 생활 습관도 리밸런싱해야 한다. 본사에서 퇴직 후 시골에서 텃밭을 가꾸며 지내던 (2면에 계속)

詩

가을의 서

한윤희(관리)

쓰르라미의 긴 통곡을
끝으로 여름이야기는 끝났다

애써 매달린 모과목 열매는
통통 황금 살이 오르고 있다

해살질하던 더위는
사그람주머니 속으로 사라지고
저녁 빛에 물든 고추잠자리는
높은음자리로 날아오른다

여름의 짓무른 기억들을
찾잔 속에 묻고 나는
깃 빠진 비둘기처럼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본다

잡목 속의 상수리 알,
이름 없는 작은 풀씨도
다음 생을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짓궂던 구름 사이로
처음 맞는 가을이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다

본사 소식

■ MBC, 시사저널 신뢰도 조사 ‘3년 연속 1위’...영향력·열독률도 선두

일반 국민의 43.2%, 전문가 33.0%가 MBC를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로 꼽았고, 열독률과 영향력에서도 MBC가 1위에 올랐다고 시사저널이 지난 8월 갤럽에 의뢰해 조사한 ‘2026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를 통해 공개했다.

■ 김성주-안정환에 오승환까지...MBC 2026 아시안게임 명품 중계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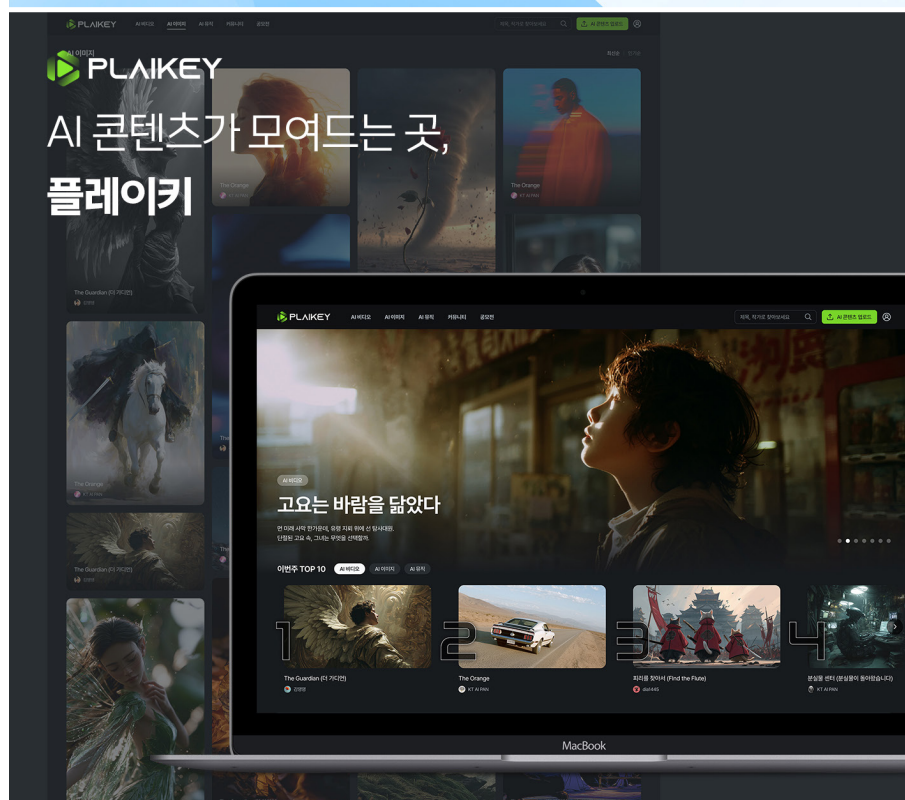
MBC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방송을 위해 최고의 캐스터와 해설진을 구성했다. 축구는 김성주-안정환-서형욱 트리오가, 야구는 정민철-오승환 해설위원-김나진 캐스터가 함께 한다.

■ <신인감독 김연경2> 직관 세 경기 전부 매진...하반기 첫 방송

하반기 방송 예정인 MBC의 스포츠 예능 <신인감독 김연경2>의 두 번째 시즌이 팬들이 직접 관람하는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추첨으로 티켓을 배부한 첫 경기와 2번의 유료 경기 역시 전 좌석이 매진됐다.

www.imbc.com

Global Content & Platform Leader imbc



한 임원의 지인은 처음 3년 동안 아내와 자녀들과 거의 매일 안부 전화를 주고받았다. 그러나 매년 통화할 때마다 별일이 없다는 말뿐이었으므로 서로의 연락 주기는 사흘에 한 번,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으로 뜸해졌다. 그러다가 연락이 뜸하던 때에 쓰러져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다들 잘하고 계시겠지만 아무리 가족끼리 연락을 자주 해도, 어느 순간 예기치 않은 사고나 불상사가 닥친다. 그래서 가족의 안부를 묻는 일을 매일의 일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동안 바쁜다는 이유로 뒤로 미뤄두었던 가족과의 관계, 특히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다시 세우는 것도 중요한 삶의 리밸런싱이다. “잘 지내지?”라는 짧은 한마디나 휴대폰으로 매일 주고받는 인사와 답장은 서로의 건강과 생활을

확인하고, 혹시 모를 위험을 조기에 알아차리는 안전망이 될 수 있다.

건강수명도 리밸런싱으로

최근 노년학 연구에 따르면 건강수명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고가의 의료 서비스나 특별한 건강 비법에 있지 않았다. 자산의 많고 적음보다 일상 속 삶의 방식을 어떻게 균형 있게 조정하고 실천하느냐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했다. 이를테면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습관 ▲가족과 친구 등과의 사회적 관계의 꾸준한 유지 ▲배우자와의 원활한 소통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지 않는 것 등이었다. 결국, 건강한 생활 습관과 인간관계, 삶의 의미를 유지하는 쪽으로 리밸런싱하는 것이 건강수명의 핵심 요인임을 시사했다.

루게릭병으로 죽음을 앞둔 ‘모리’ 교수. 그의 제자인 ‘미치 앨봄’이 그와의 대화를 엮은 《모리 교수와 함께한 화요일》에서 모리 교수는 자신의 남은 시간을 사랑과 용서, 대화와 감사에 무게중심을 두는 진정한 삶의 리밸런싱을 보여줌으로써 수천만 명에 달하는 독자들의 심금을 울렸다.

어쩌면 삶의 리밸런싱은 모리 교수처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더 많은 소유보다 더 가치 있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건강과 평온을 지킬 수 있으며, 함께하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먼저 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필자와 만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동갑이라는 사우 한 분은 “재미있는

일을 하며 지내다가 며칠 앓고 떠났으면 좋겠어. 오래 산다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라고 말했다. 남은 시간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즐겁게 살다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떠나는 것이 그가 생각하는 인생 후반의 가장 현실적인 행복인 듯했다.

은퇴는 오히려 남은 인생을 내 방식으로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이다. 더구나 남은 시간은 유한한 것이므로 일과 휴식, 가족과 나 자신, 욕심과 여유, 관계와 고독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 오늘의 삶을 더 재미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야 한다.

인생 리밸런싱은 결국 무엇을 더 채울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 보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정하는 일이 아닐까 싶다.

정리: 편집장 윤영무



ReBalancing

J사우의 리밸런싱

‘무의미하게 살아보자’

지난달 4일, 여의도 먹자빌딩 4층 도담술밥집에서 함께 식사 한 J사우는 여유와 편안함이 몸에 배어 있었다. 햇볕에 적당히 그을린 얼굴은 보기 좋게 건강해 보였고 서두르거나 힘을 주지 않는 표정과 말투에 겸손이 스며 있었다. 마치 무엇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듯, 그에게선 느긋한 평온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자리를 카페로 옮겨 내가 물었다.

“삶을 리밸런싱 해야겠다고 생각한 계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하와이로 여러 부부끼리 산행 여행을 갔다가 ‘부상과 조난, 도난’이라는 3가지 악재를 겪고 나서 회사 다닐 때처럼 살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었던 것이죠”

“그 뒤 리밸런싱을 어떻게 하셨나요?”

“.....삶을 무의미하게 살아보자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예? 다소 역설적으로 들립니다만”

“제가 말하는 ‘무의미’는 삶을 포기하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생에 너무 거창한 의미를 부여하려는 강박에서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그는 남은 시간을 의미 있는 하나의 목표에 몰아넣기보다 잘게 나누어 쓰기로 했다. 돈, 친구, 건강, 가족, 취미, 배움..... 어느 하나에 모든 것을 걸지 않고 자신에게 가치 있는 것들에 시간을 골고루 배분하는 ‘리밸런싱’을 했다.

그의 하루는 소박하다. 아침 7시 반이면 아침밥을 먹고 커피를 마신다. 오전에는 전경련 도서관에 가거나 약속한 사람을 만나 점심을 한다. 일주일에 네 번은 헬스장에 간다. 가끔 아내와 자전거를 타고, 강화도 뒷밭에서 흠을 만진다. 친구

도 많이 사귀기보다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을 만난다. 만나고 돌아서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둔다.

“시간은 돈과 달라서 다시 저축할 수 없다”는 그는 인간관계마저 ‘시간의 투자’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듯했다. 자신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에게 시간을 쓰고, 불필요한 갈등과 감정 소모에는 시간을 쓰지 않는다. 이 역시 은퇴 후 삶을 가볍게 만드는 하나의 리밸런싱이다.

죽음에 관한 생각도 달라졌다. 친구들과 특별한 연명치료를 매달리지 말자는 이야기를 나눈다. 삶의 마지막까지 억지로 붙잡기보다 인간다운 존엄을 지키며 떠날 수 있게 스위스에 가서 조용히 보내 자고도 한다. 죽음을 삶의 반대편에 놓기보다 언젠가 다가올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면서 지금의 시간을 더 소중하게 쓰게 되었다고 그는 말한다.

결국, ‘무의미하게 살아보자’는 그의 말은 은퇴 후 의미에 쫓기지 말고, 내가 가진 시간을 돈에 조금, 건강에 조금, 친구에게 조금, 가족에게 조금, 그리고 옳이 나 자신에게도 조금씩 분배하면서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인생일 수 있다는 역설이다.

성당에 나가면서 겸손과 타인에 대한 배려, 자신에 대한 반성을 더 깊이 하게 되었다는 그는 “많은 선배가 각자의 건강, 경제력, 가족관계, 하고 싶은 일이 다르지만 각자 나름대로 균형점을 잘 찾아가고 계시지 않느냐?”면서 “오히려 자신이 시건방을 떠는 것 같다”며 조심스러워했다.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아요. J사우님 말대로 잘 살려고 애쓰지 않는 그런 날도 좀 있어야지 좋겠어요?” 내가 웃으며 말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애써 잘 살려고 하지 않는 순간에도 삶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네 삶의 공통적인 리밸런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MBC사우회 임원간담회

“회원이 주인공 되는 송년회를” 송년회 준비 새 아이디어 모색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를 점검하고 하반기 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사우회 임원간담회가 지난 7월 23일 서울 MBC 강남 사옥 6층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창근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 16명이 참석해 상반기 운영 성과를 돌아보고 하반기 주요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류근종 사무처장은 상반기 주요 경영 현황을 보고한 데 이어 사우회의 손익 및 재무 현황을 설명하며 안정적인 운영 상황을 공유했다.

관심은 자연스럽게 하반기 최대 행사인 송년회 준비로 이어졌다. 류 처장은 “올해 송년회는 12월 3일 오후 5시, 아모리스 역삼에서 열릴 예정”이라며 행사 진행 방향과 준비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매년 고민거리인 기념품 선정에 대해 “그동안 대전 성심당 제품과 화장품 세트 등을 예산 범위 안에서 준비해 왔지만 이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회원들이 만족할 만한 품목을 찾기 위해 예산도 다소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원 여러분의 참신한 제안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행사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쏟아졌다. 단순한 식사와 공연을 넘어

노래 강사를 초청해 모두가 함께 즐기는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고, 회원들의 근황과 소식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해 ‘회원이 주인공이 되는 송년회’를 만들자는 제안이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회원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류 처장은 “임원들께서 알고 있는 후배들에게 사우회 가입을 적극 권유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회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우회 홈페이지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 말미에 H 부회장은 최근 자신의 뇌출혈과 긴급 뇌수술 경험을 들려주며 참석자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했다. 그는 “아내가 아침에 자신의 팔다리가 마비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부부는 어느 때건 같이 있어야 한다”고 말해 큰 공감을 얻었다. 이를 계기로 연말 송년회에서는 회원들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건강 특강을 마련해 보자는 의견도 제시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는 상반기기를 돌아보는 자리를 넘어 회원 중심의 사우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으로 마무리하고, 인근 중식당 일일향에서 다 같이 점심을 했다.



송년회 건강특강 아이디어도 나온 간담회



송년회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류근종 처장

2026
MBC 사우회
송년의 밤
2026.12.03 / 아모리스 역삼

고전동호회 64과 중 30과 완주

어렵기로 소문난 주역 공부에 도전장을 내민 고전동호회 회원들이 마침내 서패전 64과 중 상경(上經) 30과를 전원 완주했다. 공부를 시작했다가 중간에 포기 하는 사람이 적지 않지만 고전동호회는 달랐다. 14명 회원 가운데 한 명의 낙오자도 없었다. 한편 고전동호회는 오는 10월 20일 조선시대 사립과 서원, 특히 서인 계열의 학문적·정치적 기반을 이해하는 중요한 장소인 충남 논산의 돈암서원(濬巖書院)을 비롯해 윤증(尹拯) 고택 등을 탐방하기로 했다.



등산동호회 봉산과 대모산 트레킹

매달 짝수 주(週) 수요일이면 어김없이 서울 근교 산을 찾아 나서는 등산동호회(회장 최정일). 지난달에는 봉산(209m)과 대모산(293m)을 찾았다. ‘등산’보다는 ‘트레킹’ 하는 것에 가깝지만 봉산은 봉수대가 있는 정상에 올라서면 서울 도심이 한눈에 들어오며 팔배나무 군락이 볼만하다. 산길을 걷다 보면 굳어 있던 몸이 풀리고, 복잡했던 머릿속도 한결 가벼워진다. 최정일 회장은 “교통비와 간단한 간식 정도로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산행을 하려고 한다”며 많은 사우가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바둑동호회 프로사범과 지도대국

매달 첫째 수요일과 셋째 수요일 오후 2시가 되면 사우회 사무실의 고요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진다. “딱! 딱!” 바둑돌 놓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어느새 사우회 바둑동호회(회장 이진섭) 회원 10여 명이 바둑판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는다. 30여 년이 넘는 긴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바둑동호회는 지난해부터 한철균 사범(프로 9단)을 지도 기사로 초빙해 바둑 강의를 듣고, 직접 지도 대국을 받는 한편 오랜만에 만난 동료들과 수담(手談)을 나눈다.



오늘의 캘리

無我(무아)

코스모스 사랑대는 가을
국화 향기 맡으며
단풍을 바라보며
내 마음을 비우고
자연의 품에 안겨
〈無我〉를 즐겨 보세요

취미 생활하면서
종교 활동하면서
내 마음을 비우는
〈無我〉를 경험하며
인생을 멋지게 보내세요

유희근 (보도) 사우의 글씨



사우탐방

은퇴 후 최고의 직업은 '할아버지'

송재우 사주의 두 번째 인생 이야기



가족을 품은 인생 최고의 나날들

“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기 무섭게 작은 폭탄 하나가 거실을 가로질러 달려온다. “하아~지!” 네 살 손자가 망설임도 없이 송재우 사주(이하 그)에게 안긴다. 뒤질세라 일곱 살 형이 그에게 매달린다. 순식 간에 그는 말이 되고, 정글짐이 된다. 아이들에게 할아버지는 언제나 가장 재미있는 놀이터다. “자! 썸마, 썸마!” 그가 아이들을 번갈아 가며 한 손 바닥에 세운 뒤 번쩍 들어 올린다. 몸무게가 20kg 안팎인 손자들의 머리가 천장에 닿을 만큼 치켜세우면 까르르거리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 안에 가득 찬다.

허공에 번쩍 들어 올려진 아이들은 양팔을 벌리며 환하게 웃는다. 숨이 찰 법도 하지만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자, 한 번 더! 썸마, 썸마!” 그럴 때마다 그의 팔은 이소룡의 근육처럼 불끈 튀어나온다. 큰손자가 돌덩어리 같은 알통을 만지며 눈이 휘둥그레진다. “우와! 할아버지, 짱!”

그가 웃으며 말한다. “너도 이렇게 될 수 있어. 할아버지처럼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골고루 잘 먹으면 돼.” 태권도장에 다니는 큰 손자는 어느새 주황색 띠를 땀다. “오우잇!” 그가 이소룡 자세를 취하며 “덤벼라!”라고 호령한다.



천장까지 닿는 손자 사랑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보던 녀석들은 할아버지 흉내를 내며 달려들어서 서로를 안고 뒹굴며 또 한바탕 웃음이 터진다. 그러다 지쳐 같이 낮잠을 잘 땐 그는 그들의 침대가 된다. 먼저 눈을 떠 보면 작은손자는 그의 배 위에서, 큰손자는 그의 팔을 베고 자기도 한다.

저녁이 되면 그는 두 손자를 위한 요리사가 된다. 사내 녀석들이라서 주방은 금세 북새통이지만 그 시간마저 즐겁다. 아이들 엄마는 늘 “과자는 안 돼요” 하고 신신당부한다. 그런 주의를 듣고도 그는 아이들에게 과자 상자를 연다. “췌! 이건 우리만의 비밀” 그 순간은 세상 누구보다 든든한 손자들 편이다.

함께 떠들며 배우는 외국어

두 외손자는 프랑스 태생으로 파리에 살다 왔다. 일곱 살 큰손자는 엄마에게서만 배운 한국말이 서툴다가 한국에 와 어린이집에 다닌 지 1년이 넘어 이젠 자연스럽게 구사한다. 반면 네 살배기 작은손자는 엄마 외에 프랑스인 보모와도 많은 시간을 보낸 탓에 아직 우리 말이 느려, 할아버지를 “하아~지”라 부른다. 또렷이 발음하는 단어들은 ‘엄마’, ‘아빠’, ‘물’ 등으로 많지 않다. 형은 한국어, 동생은 프랑스어, 그리고 할아버지는 몸짓과 웃음으로 거실은 작은 국제학교 놀이터가 된다.

그렇게 손자들이 말을 배워 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는 깨달았다. 아이들은 언어를 무의식중에 많은 반복을 통해 배운다고. 무릎에 앉아 듣는 동화책, 틈틈이 이어지는 질문과 대답, 함께 웃고 떠드는 사랑의 시간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한다는 사실을. 그러니 외국어는 얼마나 일찍 시작하느냐보다 상황에 맞는 대화를 얼마나 파스하게 나누느냐가 중요하다.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그는 지금도 틈틈이 영어를 익힌다. 그러나 말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느낀다. 손자들이 언어를 배우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의 영어가 왜 모국어처럼 안 되는지 이유를 알게 됐다. 영어를 생활 속에서가 아니라 공부로 익혀 왔기 때문임을 손자들을 통해 실감한다.

두 외손자가 한국에 오게 된 데에는 그의 결심이 있었다. 몇 해 전, 프랑스

파리에 사는 딸의 집을 찾았을 때였다. 딸과 중국계 프랑스인 사위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가진 능력에 비해 삶이 너무 고단해 보였다.



딸과 사위, 그리고 두 양자남

“한국에 오면 더 많은 기회가 있을 텐데.” 그 생각은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결국 그는 딸 부부에게 귀국을 권유했다.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곧 그의 제안이 받아들여졌다. 그렇게 딸 가족은 한국으로 왔고, 지금은 그의 아파트 근처에서 살고 있다. 덕분에 그는 손자들과 아주 가까운 할아버지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딸의 가족을 한국으로 불러들인 그의 결심은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 단순히 노후를 외롭게 보내기 싫어서? 그건 절대 아니었다.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한다는 믿음, 피로 이어진 인연은 끝내 지켜야 한다는 6·25전쟁 참전용사였던 부친의 뜻과 정신에 그 뿌리가 있다.

6·25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아버지

1952년 여름, 6·25전쟁이 절정으로 치달던 강원도 철원의 철의 삼각지. 산과 계곡은 밤낮없이 포성과 화염에 뒤덮였다. 포탄이 떨어질 때마다 귀청이 찢어질 듯한 폭음과 함께 흙과 돌이 비 오듯 쏟아졌다. 한국군과 중공군은

하루가 멀다는 듯 고지를 뺏고 빼앗기는 사투를 벌였다.

그의 부친은 22살에 입대해 1년여 뒤 그 치열한 전투에서 중상을 입었다. 포탄의 파편 한 개가 복사뼈를 관통했고, 다른 한 개는 엉덩이를 뚫고 들어가 대장에 박혔다. 온종일 굶은 데다 큰 부상까지 겹치며 몽롱한 정신 위로 죽음의 그림자가 아른거렸다.

잠시 뒤 누군가가 부친에게 철컥 총을 들이댔다. 인해전술로 몰려온 중공군 가운데 먼저 도착한 두 명이었다. 한 명은 장교였고, 다른 한 명은 일반 병이었다. 일반 병은 아군으로부터 노획한 M1 소총을 들고 있었다. 그 총을 부친에게 들이댄 것이었다. 둘 다 소년티가 가시지 않았을 만큼 어렸다. 장교가 중국말로 물었다. “한국군 병력이 또 오는가? 오면 얼마나 되는가?” 부친은 눈치를 채고 연신 손가락을 꼽으며 거짓으로 ‘많이 온다’고 답했다. 그렇게 몇 마디 대화가 오간 뒤 장교는 부친에게 참호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못 나올 게 뻔했고,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부친은 중공군 장교의 손을 잡아 출혈이 심한 부친의 엉덩이에 가져다 댔다. 그 장교의 손에 피가 묻었다. 부친은 “야, 이렇게 많이 다쳐서 참호에 못 들어가”라고 말했다. 장교는 손에 묻은 피를 부친의 옷에 닦았다. 그리곤 저희끼리 무어라 중얼거리더니 장교가 자신의 권총집 단추를 따는 것이었다. 아군에게서 뺏은 M1 총으로 바로 쏘면 끝이려면 권총으로 즉결 처분을 하려는 것은 찰나의 기회였다. 부친은 권총집 단추를 따는 ‘딱!’ 소리를 듣는 순간 하늘이 울리도록 기합을 넣으며 한 손으로 땅을 짚었다. 몸이 일으켜졌다. 산비탈 아래로 몸을 던져 통나무처럼 굴렀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살아야 한다.’ 조상께 빌었다. “고향 집에 남기고 온 두 살배기 딸을 한 번만 보고 죽게 해주십시오.” 신기하게도 중공군이 쏘는 총에 맞지 않았다.

산기슭에서 아군 부대까지는 8km. 한 손으로 지혈을 한 채 나머지 한 손으로 이를 악물고 기었다. 중간에 아군 병사를 만났다. 한쪽 발목을 잃은 그는 울면서 도와 달라고 했다. 부친은 말했다. “나의 부상이 더 심하다. 옷을 찢어 지혈하고 같이 기어가자.” 그러나 그는 응하지 않았고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마침내 부대에 닿은 부친은 관등성명을 댄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곧 부산의

군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러나 부상이 커 제주의 제1 군인병원으로 재후송되었다. 사흘째 되던 날 화장실에 갔을 때, 대장에 박혔던 파편이 빠져나왔다. 군의관들이 경악했다.

“기적이다!” 그렇게 간신히 회복해 제대한 뒤 온갖 민간요법을 써 정상적으로 거동하게 되었다. 이후 몇 년 뒤 그가 태어났다. 그는 중학생일 때 부친과 함께 목욕탕에서 가서, 부친의 엉덩이에 선명히 남은 큰 흉터를 목격했다. 자랑스러운 아버지이자 안쓰러운 감정, 그리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그를 낳아 주신 데 대한 감사의 마음 등이 뒤엉켰다.

부친의 사랑에 바치는 가족묘지

세월이 흘러 춘천 MBC 사장 시절, 그는 휴일이면 철의 삼각지 인근 산에 올랐다. 그곳에서 서면 하늘의 별이 되신 부친을 더 가까이에서 뵈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 산바람이 말없이 얼굴을 스쳐 갔다. 천석꾼 집안에서 태어난 부친은 일본 제국주의와 6.25 전쟁의 굴곡진 역사 속에서 재산도, 평온한 삶도 모두 잃었다. 거기에다 전쟁이 남긴 트라우마는 평생 남았다. 그런데도 부친은 늘 같은 말씀을 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해 준 게 없어 미안하구나” 부친은 목숨을 걸고 나라와 자식을 지켜 내고도 늘 미흡하다고 하셨다. 그러다가 70세가 되던 해 6.25 당시 파편이 박혔던 대장 근처에서 큰 종양이 발견되면서 결국 돌아가셨다.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그는 부친께 가장 좋은 집을 지어 드리려는 심정으로 충남 서천의 선산에 가족 묘지를 조성했다. 부친의 사랑에 뒤늦게 바치는 감사의 표시였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가족묘지로 조성

사위와 둘이 찾은 부친의 묘소에 그가 절을 올리는 동안 평생 잊지 못하는 장면이 떠올랐다. 그가 입대하기 전 날이었다. 부친께 작별 인사를 드리는 순간 부친은 그의 손을 잡고 소년처럼

엉엉 우셨다. 당신이 피 흘려 싸우다 죽음의 목전에서 살아 돌아온 바로 그 전선으로 자식을 보내며 쏟으신 뜨거운 눈물은 그를 깨어나게 했다. 부친의 가없는 사랑을 깨닫게 했다.

돌이켜 보면 부친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으니,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었다. 부친의 사랑 덕분에 그도 손자들을 얻어 이제 그들에게 그 사랑을 다시 꽃피우길 소망하게 되었다.

그는 부친의 묘비를 쓰다듬으며 오래도록 말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살아남는다는 것은 끝까지 사랑하는 일이었고, 가족을 지킨다는 것은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랑으로 제 삶을 지키셨고, 저는 이제 그 사랑으로 제 아이들과 손주들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편히 잠드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 안에서 앞으로도 오래도록 아버지는 살아 계실 것입니다.

아버지...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로 살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위와 셀카 한 장

붉게 물든 석양이 그의 가족묘지 앞 저수지를 물들이고 있었다. 옆에 있는 사위에게 이곳은 “나중에 자네도 묻힐 곳”이라고 귀띔했다. 손자들을 보듬으며 지내는 사이 부친을 여의고 무너졌던 하늘이 다시 솟아났었다. 그 하늘가에서 부친이 미소 짓고 계셨다. 이어 손자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할아버지! 어서 와요.” 이윽고 그는 손자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발길을 향했다.

인터뷰/정리: 편집장 윤영무

메시지

‘좋은 조부모의 7가지 습관’

1. 손주의 말을 끝까지 들어준다

손주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곧바로 충고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네 마음은 어땠어?”라고 먼저 묻고 들어준다. 아이들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어른을 더 오래 기억한다.

2. 부모의 육아법을 존중한다

“내가 너희 키울 때는 말이야”라는 말은 하루 한 번으로 충분하다. 음식, 수면, 교육, 훈육 등 손주의 부모가 정한 원칙을 존중한다. 조부모는 부모의 경쟁자가 아니라 조력자다.

3.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한다

“사랑한다” “네가 자랑스럽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할아버지는 네 편이야” 돈이나 선물보다 이런 말 한마디가 손주의 마음에 오래 남는다.

4. 자신의 삶을 이야기해 준다

성공담만 들려주지 않는다. 젊은 날의 실패, 첫 직장에서의 실수, 가족과의 갈등, 힘들었던 시절과 그것을 어떻게 견뎌냈는지도 이야기한다. 조부모의 삶은 손주에게 살아 있는 역사책이다. 훈계보다 이야기다.

5.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않는다

“누구는 영어를 잘하는데...” “네 사촌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데...” 비교는 자극이 아니라 상처가 될 수 있다. 손주에게 필요한 말은 “누구보다 잘해라”가 아니라 “너답게 잘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다.

6. 필요할 때 조용히 돕는다

육아가 힘들 때, 부모가 지칠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손을 내민다. 그러나 도움을 준 뒤에는 생색 내지 않는다. 좋은 조부모의 도움에는 계산서가 붙지 않는다.

7. 말보다 행동으로 가르친다

책을 읽으라고 말하기 전에 책 읽는 모습을 보여준다. 사람을 존중하라고 말하기 전에 주변 사람을 존중한다.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치기 전에 정직하게 살아간다. 손주는 조부모가 한 말보다 어떤 모습을 기억한다.

조명감독 김태홍의 “돈보다 사람”

/회/원/동/정/



조명감독 김태홍에게 잘사는 기준은 없다. “남들이 좋은 것 먹을 때 저는 부대찌개 먹으면 되잖아요. 얼마가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기준이 있나요?” 그는 사람을 대하는데도 고민한다거나 계산하지 않는다. 그래서 표정은 늘 밝고 편안하다.

2019년 12월 MBC를 퇴직한 후 바로 백석예술대학교로 가서 5년간 교수로 재직하다 다시 퇴직한 그는 지금도 명함이 두 장이다. MBC미디어 해설위원과 방송 관련 HR업체인 MJ플렉스 부사장. “제가 관리하는 사람이 3천여 명 정도는 되지요”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관리해요?” “생일이면 축하해 주고,

가끔 메시지를 보내고 그러는 거죠. 특별한 비법이 없어요” 평소에 사소해 보이는 안부 전화지만 세월이 쌓이면 거대한 인맥이 되었다. 돈을 좇지 않으니 돈에 끌려가지 않고, 사람을 계산하지 않으니 사람이 모였다.

그는 부탁 받았을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은 하지 않는다. “예스면 예스, 노면 노예요.” 그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는 소리가 그의 주변에서 나왔다.

그런 그가 자신의 일곱 번째 책 『빛과 드라마』를 냈다. “50여 편의 드라마 조명감독을 하면서 숨어있던 이야기나 출연진들의 사인을 모았거든요. 친구들이 그걸 보더니 책으로 내보라고 해서 쓰게 되었지요”



돈을 추구하지 않으니 김태홍은 항상 갑이다

그는 또한 MBC를 견학하는 매년 4천 여명에게 방송현장을 해설하는 봉사를 한다 “미디어 해설은 돈의 가치를 넘어서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들어도 젊은 학생들을 모을 수 없고, 학생들의 귀를 즐겁게 만들 수 없는데 이걸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드라마의 뒷이야기 역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다. 7번째로 세상에 나온 그의 책 또한 그럴 것이다.

세계코리아포럼 주제발표
정상모(보도)

정상모(평화민족문화연구원 이사장) 사우회는 지난달 19일~20일 인도 뉴델리 델리대학교에서 20여 개국 100여 명의 정치, 외교, 경제, 문화 전문가와 현지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7회 세계코리아 포럼’에서 《국제질서 붕괴와 한민족 평화독트린》이란 주제 발표를 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순홍(대전)
7월 12일 별세
향년 76세
1972년 대전MBC
ANN 입사
아나운서 근무
EBS, CBS 근무



洪鍾宣(편제)
7월 27일 별세
향년 89세
1964년 PD 입사
포항MBC 사장
제주MBC 사장
문화방송 감사



박재복(업무)
8월 7일 별세,
향년 65세
1992년 프로덕션 입사
2005년 MBC전보
프로그램 수출 업무
일본지사장



김상호(대구)
8월 12일 별세,
향년 83세
1968년 대구MBC PD 입사
대구MBC 편성/총무국장
대구MBC미디어컴(주) 사장



이정오(관리)
8월 14일 별세
향년 90세
1981년 총무국 입사
인사기록 관리, 필경



이명하(기술)
8월 26일 별세
향년 81세
1969년 기술국 입사
TV송출부 국장

신입회원을 환영합니다



최순형(편제)
1987년 제작CA 입사
영상센터 카메라 감독
2022년 정년퇴직



경조사항

구 순: 정형진(관리) 37.10.10. 최창일(관리) 37.11.14.	오정수(기술) 37.10.20.	천기정(업무) 37.10.27.
팔 순: 정국록(보도) 47.10.01. 김영식(기술) 47.10.16.	마병두(편제) 47.10.11. 정병운 (보도) 47.11.06.	김일중(관리) 47.10.13.
고 희: 박순호(관리) 57.09.18. 최홍미(관리) 57.10.07. 염영수(편제) 57.10.20. 노영남(기술) 57.11.08.	이중례(편제) 57.09.21. 윤병성(편제) 57.10.18. 김영운(기술) 57.10.25. 윤능호(보도) 57.11.13.	임무혁(관리) 57.09.23. 이원표(관리) 57.10.19. 이장석(보도) 57.11.01.
회 갑: 김태경(관리) 66.11.08.	정길용(관리) 아들 08.23	李鎭宇(관리) 아들 10.09
부 음: 이대희(관리) 모친상 07.05 전진권(편제) 모친상 08.02 정순원(보도) 모친상 08.22	장두형(대전) 배우자상 07.12 이병익(보도) 장모상 08.19	이순곤(편제) 모친상 07.17 최근진(기술) 장모상 08.19

연회비

2026년 : 권순훈(관리) 최순형(편제) 김철영(편제)

주소변경/신규

편제 이주갑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33길 23 (양평동3가, 우림 루미아트)
안택호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67 (잠원동, 오티에르 반포)
박종진 경기 안산시 상록구 장화2길 25-14 (사동)
박찬순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150 (덕소리, 강변현대아파트)
한영훈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122 (문춘마을16단지아파트)
임경수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90 (중동, 위브더스테이트)
최순형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애니골길 7-27 (풍동, 쌍용아파트)
보도 우경민 경기 파주시 가람로 22 (가람마을 1단지 벽산한라아파트)
임병길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로419번길 33 (장사동)
이상진 경기 오산시 가수행복로 55-5 (오산세교2엘에이치12단지)
관리 김삼량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풍로 44-25 (풍동, 성원아파트)
심재주 서울 동작구 만양로 6 (상도동, e편한세상 상도노빌리티)

MBC사우회
협약업체

C&G라이프 상조서비스(박성준 대표) 010-8761-6643
네오블루매 플라워(박건미 대표) 010-3343-8973
세란병원 건강검진센터 1577-0196
JC소망안과(여의도) 전용예약 콜센터 02-785-1068

분열의 시대, 일본 통일의 길을 묻다 1부

송원근(관리)



국론이 갈라지고 남북통일의 의미마저 희미해지는 오늘, 일본에서만 6,500만 부가 팔렸다는 야마오카 쇼하치(1907~1978)의 《도쿠가와 이에야스 - 우리나라에선 《대망》 - 가 던지는 질문은 무엇일까? 송원근 사우회는 그 답을 찾아 분열과 혼란 속에서 일본 통일의 기틀을 만든 노부나가 히데요시·이에야스 등 세 사람의 발자취를 답사했다. 그의 답사 여행기를 2회에 걸쳐 실는다

-편집자 주

나고야역을 기점으로 삼은 나의 답사 여행은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 1534~1582 자결, 49세),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1537~1598, 병사 62세),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

康, 1543~1616 사인 불명, 74세)가 성장하고 세력을 키웠던 나고야시와 아이치현(愛知県)을 비롯해 기후현(岐阜縣), 시가현(滋賀縣), 시즈오카현(静岡県) 등에 산재한 여러 성(城)과 유적지를 기차로 다닌 5박 6일의 일정.

내가 주목한 것은 서로를 의심하고 배신하며, 때로는 정략결혼과 동맹으로 세력을 넓혀가는 전국시대의 인간 군상이 아니었다. 기존의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며 일본 통일을 향한 「오다 노부나가」(앞으로 그)의 현실적인 감각에 관해 주의를 기울였다.



이누야마성 기소강에서 송원근 사우

먼저 그의 출생지인 쇼바타(勝幡)를 찾았다. 나고야역에서 기차로 20여 분.

쇼바타역 광장에는 어린 그를 품에 안은 어머니와 곁에 선 아버지의 동상이 있고 10여 분 거리를 두고 그의 할아버지 「오다 노부사다(織田信定, ?~1551)」가 세웠다는 쇼바타성의 돌비가 있다. 지금은 흔적을 찾을 수 없지만 그의 할아버지는 이곳에서 기소강(木曽川)의 수운과 연결된 중요한 상업거점인 쓰시마(津島)를 눈여겨보고 그곳으로 진출해 자기의 영향력을 넓히고 경제적 기반을 확보했다. 오다 가문은 이러한 실용적인 상업 정신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었다.

확실히 그는 할아버지의 궤를 이어받은 듯했다. 나고야역에서 고속열차로 15분 남짓, 기요스성(清洲城)을 찾아 천수각(天守閣, 성곽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에 올랐을 때 벽면마다 그의 혁신적인 이야기가 펼쳐진 것을 보았다. 병농분리를 실시해 농민이 아닌 전문적인 무사 집단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운영했고 조총병을 조직적으로 운용해 전쟁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꿨다. 특히 낙시낙좌(樂市樂座)를 통해 시장

의 특권과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상인들의 자유로운 거래를 장려했으며, 화폐 유통과 거래 질서를 정비하는 친 상업정책을 추진했다.



통일을 향한 노부나가의 기요스성

그래서일까 그는 이 성을 거점으로 오와리(나고야시와 아이치현 일대)를 통합해 나갔고, 히데요시를 말단 하인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1560년 오케자마 전투 이후 이에야스와 동맹을 맺고 일본 통일을 향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다.

기요스성을 떠나면서 나는 일본 통일이 전쟁터의 칼끝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람과 물자가 오가고 돈과 정보가 흐르는 상업의 길에서 싹튼 게 아닐까? 생각했다. (다음 호에 계속)

발전 기금을 주신 분들 (7월 18일 이후)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mbcsau.com>)에 있습니다



익명(보도) 100만원



金弘基(보도) 30만원



최근진(기술) 30만원



발전기금 납부 계좌 : KEB하나은행 158-890070-29405 MBC사우회

아셨나요? MBC사우회 동명이인(同名異人)

김상균 金相均 (보도)	김종현 金鍾顯 (기술)	이상욱 李相旭 (보도)	이진숙 李眞淑 (보도)
김상균 金相均 (편제)	김종현 金鍾賢 (기술)	이상욱 李相旭 (관리)	이진숙 李眞淑 (관리)
김상철 金相哲 (보도)	김흥기 金弘基 (보도)	이상원 李庠元 (대구)	정동영 鄭東榮 (대구)
김상철 金相哲 (보도)	김흥기 金洪起 (편제)	이상원 李相元 (편제)	정동영 鄭東泳 (보도)
김상철 金相哲 (편제)		이상원 李相元 (기술)	
김상철 金相喆 (기술)	박승기 朴承基 (전주)		정보영 鄭輔永 (편제)
	박승기 朴勝起 (관리)		정보영 鄭寶英 (ANN)
김영일 金榮日 (보도)		이성수 李誠洙 (보도)	
김영일 金泳日 (보도)	박정근 朴正根 (편제)	이성수 李成洙 (관리)	
	박정근 朴正根 (편제)		조복현 趙福鉉 (기술)
김영철 金英澈 (편제)		이용우 李鎔宇 (관리)	조복현 趙福顯 (기술)
김영철 金永哲 (관리)	이명숙 李明淑 (편제)	이용우 李龍雨 (보도)	
	이명숙 李明淑 (관리)		최우철 崔宇哲 (보도)
김재현 金在鉉 (전주)		이재원 李在元 (전주)	최우철 崔宇喆 (편제)
김재현 金在鉉 (편제)	이상길 李相吉 (편제)	이재원 李在原 (관리)	
	이상길 李相吉 (관리)		홍성기 洪成基 (관리)
김종국 金鍾國 (관리)		이재훈 李在薰 (보도)	홍성기 洪成基 (기술)
김종국 金鍾國 (보도)		이재훈 李在訓 (기술)	

10월 7일

사우회 친선 바둑대회

올해로 34년 째를 맞는 사우회장배 친선 바둑 대회가 오는 10월 7일 정동 사우회 사무실에서 열립니다. 바둑을 사랑하는 사우라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습니다. 마주 앉아 수담(手談)을 나누며 승부와 우정의 추억을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 총무 김종한 010-5633-1636



10월 28일

사우회 등산대회

10월 28일 오전 10시 반, 우면산에서 만나요! 정겨운 둘레길과 숲길을 따라 맑은 가을바람을 마시며 깊어 가는 가을 속으로 걸어봅시다.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지금, 그것만으로도 축복입니다.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추억도 만듭시다. 함께 걷고 싶은 사람을 동반해도 환영합니다.

문의: 회장 최정일 010-4214-5534



정동레터

♥ 네팔의 홍수, 순식간에 일어나는 자연의 위협. 그 앞에서는 재산도, 계획도, 자신감도 순삭이다. 지구인 하루하루의 무심한 의식을 경계하고 실천하는 일을 나부터!! 오늘부터!!
♥ 자산만 리밸런싱하냐고? 인생도 때가 되면 리밸런싱이다. 시공(時空)이 바뀌었는데 예전 저울추를 그대로 들고 있으면 인생이 기울어진다. 인생의 정답은 몰빵이 아니라 중용!
♥ 지난호에 가입한 신입회원이 부부였다는 게 흥미로워 알아보니 사우회에 부부가 10쌍 정도.

동명이인도 알아보니 50분 정도가 되네요. 그 동안 다른 부문과 헛갈려 하신 분들 많으셨을 듯^^
♥ 더위에 지쳤는지, 동정 소식도 신입회원 가입 소식도 잠시 '절전 모드'인 듯...에어컨 끼고 방콕한 세월도 한풀 꺾이면 회원님들의 소식도, 새 얼굴도, 사우회도 활력 박스 둠칫! 둠칫!
♥ 사우회보의 **오타자**를 찾아 **'스타벅스 커피'** 선물을 주는 이벤트는 쭉~욱 계속됩니다. 96호에서도 연락이 없었네요..... 웃짜!!

편집부



함께 아시아
함께 MBC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2026.09.19. ~ 10.04.

최고의 명품 중계로
시청자와 함께 합니다



안정환 / 김성주 / 장혜진 / 오승환 / 하승진